

한국갤럽 Gallup Report 2013/8/20

영화 ‘천안함 프로젝트’ 상영 금지해야 하나?

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‘천안함 프로젝트’가 제작됐는데요, 일부 현역 해군 장교 및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‘사실을 왜곡하고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’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이러한 가운데 ‘천안함 프로젝트’는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관람가 판정을 받은 데 이어 27일 첫 시사회를 앞두고 있습니다.

천안함 사건 4주기가 되는 내년 초에는 천안함 사건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도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, 이에 앞선 영화 상영 금지 논란에 대해 우리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한국갤럽이 8월 12~14일(3일간)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006명에게 물어봤습니다.

조사 개요

1. 조사기간: 2013년 8월 12~14일(3일간)
2. 표본추출: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
3. 응답방식: 전화조사원 인터뷰
(한국갤럽 전화조사원이 무작위로 생성된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어 인터뷰)
4. 조사대상: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,006명
5. 표본오차: $\pm 3.1\%$ 포인트(95% 신뢰수준)
6. 응답률: 16%(총 통화 6,400명 중 1,006명 응답 완료)
7. 의뢰기관: 한국갤럽 자체조사

주요 결과

- 천안함 사건의 원인, ‘북한 소행이다’ 64% vs. ‘북한 소행 아니다’ 15%
- 영화 ‘천안함 프로젝트’, ‘상영해도 된다’ 46% vs. ‘상영 금지해야 한다’ 29%

천안함 사건의 원인, '북한 소행이다' 64% vs. '북한 소행 아니다' 15%

한국갤럽이 지난 8월 12~14일까지 3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,006명에게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물은 결과 '북한 소행이다' 64%, '북한 소행 아니다' 15%로 답해 우리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북한이 저지른 일로 봤으며, 21%는 의견을 유보했다.

연령별로 보면 천안함 사건이 '북한 소행'이라는 의견은 30대에서 44%로 가장 낮았고 그 이상 고연령일수록 높아져 40대에서는 63%, 50대 76%, 60세 이상에서는 82%에 달했다.

천안함 사건에 대해서는 지지정당별 견해 차가 컸다.

새누리당 지지자(395명)의 85%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, 5%만이 그렇지 않다고 답한 반면, 민주당 지지자(210명)에서는 49%가 북한 소행, 25%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었고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파(375명)에서는 54%가 북한 소행, 17%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.

▶ 천안함 사건의 원인은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북한 소행이다	북한 소행 아니다	모름/ 응답거절
전체		1,006	64	15	21
성별	남성	498	65	14	21
	여성	508	64	15	21
연령별	19~29세	182	56	18	26
	30대	202	44	25	30
	40대	220	63	15	21
	50대	192	76	11	14
	60세 이상	210	82	4	14
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395	85	5	10
	민주당	210	49	25	26
	지지정당 없음	375	54	17	28

질문) 귀하께서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고 보십니까,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보십니까?

영화 '천안함 프로젝트', '상영해도 된다' 46% vs. '상영 금지해야 한다' 29%

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폭침됐다는 민군합동조사단의 결론에 의문을 제기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'천안함 프로젝트'는 해군 장교 및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지난 13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12세 관람가 등급 판정을 받고 곧 개봉할 예정이다.

'천안함 프로젝트'를 상영금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물은 결과 '상영해도 된다'는 의견이 46%로 '상영 금지해야 한다'(29%)보다 많았다.

현재 '천안함 프로젝트'는 개봉 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.
또한 우리 국민 다수가 천안함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.
따라서 '상영해도 된다'는 국민의 의견은 천안함 사건의 진실이나 영화 내용에 대한 판단보다는
창작과 표현, 언론의 자유라는 일반론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.

'천안함 프로젝트'를 상영해도 된다는 의견은 30대(57%)에서 가장 많고 60세 이상(35%)에서
가장 적었다. 한편 상영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20대에서 39%로 가장 많았다.

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자(395명)에서는 상영 금지(34%)와 상영해도 된다(41%)는
의견이 엇갈렸으나, 민주당 지지자(210명)에서는 상영해도 된다(58%)는 의견이 다수였으며
무당파(375명)에서도 상영해도 된다(42%)는 의견이 상영 금지(27%)보다 더 많았다.

한편, 천안함 사건을 북한 소행이라고 보는 사람(647명) 중에서도
상영 금지(36%)와 상영해도 된다(40%)는 의견이 팽팽하게 양분됐다.

▶ '천안함 프로젝트' 상영 금지해야 하나? (단위: %)

구분		표본수(명)	상영 금지해야 한다	상영해도 된다	모름/ 응답거절
전체		1,006	29	46	25
성별	남성	498	28	49	22
	여성	508	30	42	28
연령별	19~29세	182	<u>39</u>	43	17
	30대	202	24	<u>57</u>	18
	40대	220	23	50	27
	50대	192	31	42	27
	60세 이상	210	31	35	35
지지 정당별	새누리당	395	<u>34</u>	41	25
	민주당	210	25	<u>58</u>	18
	지지정당 없음	375	27	42	31
천안함 사건 원인 인식별	북한 소행	647	36	40	25
	북한 소행 아님	148	23	<u>60</u>	17
	모름/응답거절	211	14	54	32

질문) 최근 천안함 사건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됐는데요,
군 관계자와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들은 이 영화가 천안함 침몰이 북한 소행이라는 사실을
왜곡했다는 이유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
귀하께서는 이 영화를 상영 금지해야 한다고 보십니까, 상영해도 된다고 보십니까?